

한 마디

“ 탐정은 아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어. ”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다면, 얼마든지.

이름

레이시 타스쿠 Laice A. Tasuku

외관



이미지 사이트: <https://www.neka.cc/composer/13673>

일자로 자른 앞머리, 옆에서 한갈래로 묶은 머리. 풀었을 때 길이는 허리 정도. 눈동자는 호박색(첨부 이미지의 색상 차이는 제작 사이트로 인한 문제이며, 설정 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사복이라고 부르긴 미묘한 양복 내지 제복 계열 패션. 여름엔 반바지라는 러프한 포인트가 자주 보이지만, 언제나 짙은색 스타킹과 함께 입는 게 나름의 예의겠지. 굽이 거의 없는 낮은 로퍼. 곧게 서 있는 자세. 이유는 몰라도, 레이시의 모습을 멀리서 본 이들은 그녀를 실제 신장보다 크게 착각하기도 했다.

나이

23세

신장 및 체중

166cm(신발 포함 168cm)/48kg

성격

호기심 많은 학습 정신(어쩌면 직업 정신의 공존)

레이시와 단순히 마주친 게 아니라 대화한 후의 첫인상은, 대체로 ‘깜짝 놀랐다’일 것이다. 서로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혹은 일방적으로 아는 사이인지. 장소가 어떤 곳인지. 시간이 어느 때인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레이시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당신에게 다가갔을 테니까. 처음 나오는 문장은 으레 비슷하다. “실례지만 확인하고 싶거든…” 그 뒤는 다양해진다. “그건 뭐야?”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 이외에도 수많은, 그러나 “질문”인 말들. 그리고 답이 어찌 되었건, 레이시는 감사와 작별을 고한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모범적인 절제 유형?

질문하지 않는 한 레이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조용하다. 인사 정도는 건넨다. 하지만 그 외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다. 굳이 오지랖을 부리는 일이 드물다. 다가올 때와 보고만 있을 때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 모두 특징이 되는 것일까? 물론, 레이시는 어느 쪽이든 ‘같은 상태’다. 단지 레이시가 멈춰 섰을 때, 당신 앞에 남아 있는 거리만이 다를 뿐이다. 사교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규율은 상당히 잘 지키는 편이고 해야 할 일은 해낸다. 교수에게는 제법 좋은 학생이, 학생에게는 제법 좋은 강사가 되겠지. 직장 동료로 만나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조금 FM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레이시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지, 일정을 종종 헛갈리곤 한다. 의외로 본성은 덜렁대는 쪽일지도 모르지.

친절과 인내의 합작

미소가 표정의 기본값이 아닐까? 혹은 비슷한 무언가든가. 어쨌든 레이시의 표정은 미소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격하게 화를 내는 얼굴도, 평평 우는 얼굴도, 여태껏 본 사람이 없다. 레이시가 정말로 화내고 우는 일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게, 일단 전부 참고보는 사람 같으니까. 힘든 역할을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내색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다면 타인의 선택을 따른다. 중대한, 레이시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그게 무엇인지는 당사자밖에 모르겠으나-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전부 웃는 얼굴 그대로 넘겨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타 사항

호불호

호 -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 계승, 휴일의 늦잠, 연상보다는 연하가 편하다

불호 - 일부 황제, 유실, 스스로의 지각, 찰나의 영원, 샤덴프로이데, 난폭운전(을 비롯한 멀미 유발 상황)

취미 생활

업무를 포함한 여행, 독서, 연구, 웹서핑 등등.

전자기기를 다루는 게 능숙하다.

특기

지금으로써는 특기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뭐든 급제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무엇 하나 통달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전분야에 걸친 아마추어, 영역을 무시한 모방진행.

약점

멀미가 상당히 심하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서 해결이 어렵다고. 확실히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어서 말하지 않으면 티도 안 난다.

특이사항

칼데아 전화번호부 - 레이시를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질문받은 적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연락처 말이다. 레이시는 칼데아에서 마주친 모두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확인한 연락처는 모두 기억하여 기록했다. 레이시는 이를 “칼데아 전화번호부”라고 명명했다. 특별히 열람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 열람용과 수집용 별도로 제작하여, 프라이버시 요청이 있는 항목은 열람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수집용이더라도, 답해주지 않은 연락처는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휴대 소지품 - 수첩과 펜, 작은 회중시계, 스마트폰, 페이퍼 나이프(결코 전투용이 아니다).

개인실 - 업무 시에는 소지하지 않지만 칼데아 내에서는 태블릿PC도 사용한다. 방 안에 책장과 다 쓴, 혹은 앞으로 쓸 문구류가 조금 지나칠 정도로 많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 언제 불이 꺼지고 언제 불이 켜질지 모른다.

현대 마술예장 - 수호부(리본 형태의 아물렛으로, 머리카락을 묶은 그것. 보호 목적이나, 행운 상승의 효과도 있다.), 귀걸이(마력을 축적해둔, 즉, 연료용. 귀걸이 자체도 드림캐쳐와 같지만 주 용도는 역시 마력.)

마술속성 / 마술특성
공 空 / 정명 (가문 공통), 사유(아마도 여러 의미)

마술계통
현대 마술, 연금술, 수비문

본래 타스쿠는 음양도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음양도의 정점은 헤이안 시대의 일본. 타스쿠는 지역을 옮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수순으로 쇠퇴해갔다. 그러나 가문의 급진파들은 서양의 환경에 맞춰 셀 수 없는 연구, 시도를 끝없이 거듭해…… 이전까지의 길에서 벗어났다. 즉, 시작부터 이어진 마술계통(음양도)을 카발라로 바꾼 것이다. 이외에도 계속 여기저기 리폼해왔으니. 사실 가문의 마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테세우스의 배 같은 상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발전하면 마술도 발전한다. 비록 여기저기 잘라버리고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질과 목표가 변화했지만. 그 상태로 상당한 시간을 쌓아올리면, 그 위로 성과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특이사항이라면 사연이 사연인 만큼 신비의 해석이 상당히 독창적이다. 그만큼 현대 마술과 잘 어울린다면 레이시로서는 잘 된 일이지만. 부적 같은 물건에 마력을 축적해두고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력과 부적의 상응점을 만들어 이용한다는, 계통과 특성의 활용.

소속
시계탑 - 고고학과
사회적인 직업도 고고학자로 되어 있다. 이래봐도 공식적인 경력만으로 7년 차. 국적은 일단 영국.
가문 - 타스쿠
극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타스쿠가 영국에 이주한 지도 어언 600년……。 이미 뿌리가 된 나라는 잊혀진 지 오래되었다. 원어 표기도 ‘Tasuku’일 지경. 레이시는 유래가 된 언어를 알고, 쓸 수 있지만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먼저 꺼내지 않는다.

마술회로
이상 - 거울상 개념과 동일한 치우침 있음
질 - Ex(특이) / 양 - E.
실질적인 재능(질)은 B- 정도.

성향
혼돈·중용

선관
[프란치스코 반 로즈필드]

칼데아에 오기 전부터 교류해온 지인. 관계만 말하자면 단적으로 계약 관계인 가문의 후계자.
미래의 계약주.

레이시는 고고학자다. 그리고 고고학은, 발굴은,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재능인지 행운인지, 어쨌든 레이시는 실적이 좋다. 고고학자로서—발굴자로서도, 연구자로서도
모두 뛰어나다고 말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이를 쉽고 안전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레이시는 다수의
계약 관계를 만들어 지속하고 있다. 후원에 가까운 형태로 도움받아 발굴하고, 발굴된 유물 중
일부를 기부 또는 우선적으로 판매해준다는 기브 앤 테이크.

그 계약 관계 중 하나가 로즈필드 가인 것이다. 자주 볼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다. 시작이
그러했듯이, 계약을 위해 로즈필드 가에 방문하면 만나게 되는 정도.
그러나 서로 보내온 시간이 있다보니, 다른 이들보다 더 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도,
틀리지 않으리라. 그야, 보라. 형제처럼 보인다고 해도 될 것 같지 않은가?

(이하 공개 프로필에서는 지워지는, 선관과 관련된 비밀 설정입니다.)

로즈필드 가의 사건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로즈필드 가의 전, 현 후계자 모두를 알고 있었다. 그야 같이 만나기도 했고, 오히려 업무라면 전
후계자를 더 많이 봤으니까.
그러나 어느날, 없어져버린 것이다. 전 후계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기억은 불확실 暗轉. 아아, 그야말로 과거——
더는 명확히 “다시 볼” 수도 없는 종영이 되어버린 셈이다.
인식과 인상만이 흐릿하게 남은 과거를, 그럼에도 종종 추억한다. 비록 그것을, 공유조차 할 수
없지만.

비밀설정

이름

레이시 타스쿠 零始 翼

플네임과 뜻을 공유하지만 조금 다르다. 굳이 말하자면 DQN 네임 같은 것. 저주를 피한다는 건 부차적인 이유로, 사실은 신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꺼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크다. 구전의 영향이 큰 카발라임을 감안해도, 과연 뿌리가 보이는 방식이겠지.(하지만 이제 일어를 할 줄 아는 구성원은 거의 없다.)

정확한 이름은 아인소프 A. 슈모트 00(Ainsoph) Amolish Shemot. 성을 읽는 방법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아인소프의 경우에는 슈모트.

시각 始覺

깨달음, 근원을 아는 것. 근원은 근본이요, 시작이니—— 즉, 과거(원점)를 알 수 있다면 깨달음(근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어느날, 타스쿠의 누군가가 그런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널려있는 수준의 과거시로는 어림도 없는 게 당연하고. 운명력을 볼 수 있는 궁극의 과거시에 도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결국 몇 대 전부터 과거시를 통한 방법은 거의 포기한 채였다. 그리고 아무 전조도, 계기도 없이(無). 바람(Path)은 이루어졌다. 23년 전, 한 아이가 과거에 닿은 채 태어남으로써.(예정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인소프 슈모트보다 레이시 타스쿠 쪽이 먼저 지어졌다.)

근원의 소용돌이에서 시작까지 파악하여 비추는, 직사의 마안의 형제 같은 능력. 엄밀히 말하면 마안이라고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굳이 명명하자면 시원始原의 마안이라고 할까. 차안(존재)이 시작되는 처음(경계)까지 닿는, 피안(세피로트)의 시각(빛).

시작점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더 멀리 있을수록(더 오래됐을수록) 마력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향을 주려면 직접 간섭할(직사의 마안이 찢르고 절단해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필요도 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한편 직사의 마안과 달리, 무엇이든 시작점“만” 보이는 건 아니다. 시작점“까지” 보일 뿐. 그렇지 않았더라면, 직업 상 이미 몇 번은 죽었겠지…….

직업을 가진 이유도, 직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도 이것이다만. 충분히 조절할 수 없다는 건 흔하고 거대한 단점이다. 레이시는 이 능력으로 인해 자신이 실재하는 시점—— 다른 말로는 육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어딘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마술회로를 통해 시간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활용도 변변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그 답조차 시선 속에서 섞이곤 하므로.

*메타적인 설명문입니다

Q. “끝”이 아닌 “시작”을 보는 것이라면 직사의 마안과 달리 죽이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A. 직사의 마안이 끝(미래)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시기를 앞당기는 쪽이라면, 시원의 마안은 처음(과거)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아무것도 없었던 0으로 되돌리는 쪽이 아닐까… 하는 해석입니다.

LCL 상태로 되돌리는 원리로 죽음을 불러온다는 설명이 제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설명을 위한 주석입니다.

친절하지만 냉혹한

아인소프는, 애초에 포장할 생각도 없지만. 그다지 착한 사람은 아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받아주는 영역이 클 뿐이지. 그야, 대부분 “어떻게 되든 관찮으니까”. 무심에서 나오는(무관심하지는 않다) 포용.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오고 그것이 아인소프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감각하니까. 그럼에도 어두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건, 낙관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생에 실감이 없으므로.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전부 포기한 채니까.

인리게속선언기관 칼데아에 합류한 이유/인리의 존속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입장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로 남게 돼. 과거가 이어질 현재와 미래가 없다면 말야, 나는…….
살아 가는(行く) 의미도, 이유도 없어지지 않을까?
후후, 그러니까 나는 꽤 좋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 아름답잖아? 열매(미래)를 위해 피어날 수 있는 꽃(존재) 같은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반대로 모든 게 있는 것 같은, 어지럽기만 한 풍경이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칼데아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지. 과거를 보고 현재를 겪는 나에게, 미래도 있다고 선언해주는 거야. 아아, 이곳이라면 분명——

캐릭터가 현시점 인류에게 가장 많이 가진 감상(가장 많이 느끼는 기분)이…… 멀미난다는 쪽입니다만 개그성 답변이 아닙니다(ㄸㄸ). 설명을 위해 오너 측에서 작성합니다.
멀미 - 육체는 실체를 가지고 현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과거와 현재 양쪽을 동시에 관측하므로 시각의 낙차가 생긴다. 본인이 느끼는 감상으로는 만화경이 빠르게 돌아가는 듯한 풍경. 이를 심리적으로 어지럽고 울렁거린다고 느낀다. 멀미가 유독 심한 원인도 이것. 애시당초

훈이 소용돌이를 보고 있는, 이미 멀미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흔들림에 약한 것이다.
더욱이, 이를 “항상” 유지하는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야와 동떨어진 듯한, 멀리 있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현실감 있는 생생한 기분을 느끼면 낯선 감각을 가장 먼저
느낀다.

트위터 계정

@

1.5차 지인 확인란